

문화광장



변명선 작가

그리는 것도 형편없는데 감상하라 한 다며 곤혹스러워했다. 미술은 본인만 모르는 언어가 있는 것 같으며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불통의 시간을 함께 견고 있었고 누구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을 뿐이다. 작품의 암호를 각자 방식으로 해독한다. 무엇 때문에 감성의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상징의 형식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더 깊어졌다. 화두는 소통이라 했지만, 불통했던 향유의 시간이 당장은 편하지는 않다. 차차 이해되고 끄덕여지는 공간, 그 지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엮드려 산을 보는 도시

한다. 식당 안 공간도 배치와 시선의 흐름, 추가 되는 색조와 음식의 색과 맛, 모두 감성을 자극한다. 작고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도시디자인의 시각까지 연결하는 것, 집요하게 핵심을 이야기하는 지점이 있다. 이 제주 도라는 독립된 문화의 한 점으로 살아 가면서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를 품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작년부터 논의되었던 서귀포다움에 대한 고민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것이 단편적인 단어 하나, 색이나 형태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서귀포다움은 무엇이다'라고 몇 단어의 조합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래서 더 흥미를 가져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고민들이다. 도시는 생활처럼 살아 움직인다. 유럽엔 수 없이 많은 고풍미술관이 있다. 그중 그 정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고풍 페라다미술관은 흥미롭다. 고가의 고풍그림은 없지만 이슈가 바뀔 때 마다 그곳엔 어떤 페라다작품이 걸려있을까 궁금하다. 미술관은 전통적 개념에

서 벗어나서 생동감있게 움직이고 있다. 공간의 감동을 위한 철학적 고민을 전제로 나아가고 있다. 테시마 미술관의 비와 바람과 온도 그 모든 원초적인 인간의 감성을 전사하는 공간전의 창의적 발상처럼, 더 넓은 의미의 도시의 감성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파리는 이미 미술관의 기능을 잃었다. 감동은 커녕 그저 눈도장 한번 찍기도 힘든 인파다. 모사하여 그린 모나리자를 보려는 줄은 끝없이 길다. 진품을 수장고에 놓고 보조로 만든 작품을 보여 우리는 왜 놀라워해야만 하는가. 휴가철 많은 비용의 미술관투어에 회의적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또 다시 도시, 파리를 꿈꾼다. 가고 싶은 도시로 가슴에 두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시의 가치를 중하게 여겨 만들어 갔던 곳이기도 도시 공간 안에서 감성 즐거움을 꿈꾼다. 건네 만드는 거리, 이야기를 하며 걸어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은 매력 도시이기 때문이다. 걸어 다니며 감

지하는 사람마다의 시선 속, 생동하는 도시가 매일 재탄생한다.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도시가 된다. 서귀포는 사색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이 두 군데가 있다. 거리를 걷다보면 나지막하게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늑한 친근한 거리다. 노인이 이 거리를 걸어도 어색하지 않고 정류장에 기다리는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역시 정겹다. 전체 도시의 풍경은 "낮게 엮드려 어디서든 한라산을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이것이 서귀포다움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릴 수가 없다. 한라산은 높은 자연의 기상을 뽐내라. 마을은 자연에 경배하며 남작 엮드려 한라산을 바라볼 테니. 이것이 진정한 우리만의 감성의 핵심인 것이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앞에 우뚝 선 한라산을 높은 건물로 가두지 말기를 바란다. 모든 구체적 의지는 제도적 실천에서 나오기에 앞서 내 지역의 감성을 읽어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설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협치' 해야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그 세상은 바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으르렁대기 일쑤였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10대 도의회는 출범하자마자 예산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며 편한 날이 없었다. 그랬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협치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전격 합의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합의사항을 신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 선언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주도와 의회간 협력 방안 등 3가지 사항이 담겼다. 김 의장은 "11대 도의회 개원식 때 원 지사가 축사를 통해 도의회의 조직권과 인사 독립에 화답했다. 협치의 첫걸음으로 전국 최초사례"라

며 "앞으로 도의회가 인사 조직 및 자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의회의 견제기능을 전제로 협치와 연정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도민들의 만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회와 함께 논의되고 결정된 것을 조례에 담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현안은 상설기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정치실현이 시작됐다. 김 의장이 도의회 개원식에서 요구한 '협치의 제도화'에 원 지사가 화답하면서 '제주형 협치'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제주형 협치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속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 결과, 제주 정치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집행부 수장은 무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하면서 협치 없이는 도정 수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치를 강조한 원 지사의 진정성이다. 원 지사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그런 협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의회도 협치를 하되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제주도와 의회는 오직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이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열린마당

사회혁신 추구하는 도두오래물축제



윤경호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제주 섬머리 도두마을은 제주 북북서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 근교의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다. 바다를 접한 해안선은 그 어느 해안가 못지않게 아름다운 곡물을 보이고, 그 중간에 도두봉이 맞닿아 있으며, 여름에는 일출처럼 차가운, 겨울에는 따뜻한 용천수가 분출하는 오래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래물 이름의 기원은 '오방(午方)에서 솟는다'하여 붙여졌다고 하며, 오래물은 용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서 그냥 마셨던 물이기도 하고, 이 근처 길이나 마당 등 어느 곳의 땅을 파도 샘이 솟았다고 한다. 오는 8월 10~12일 제18회 도두오래물축제가 오래물관광 및 도두항 일원에서 도두오래물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도두동을 알리고 동민들이 화합과 단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도두오래물수산물대축제'로 시작됐다. 화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체험 중심으로 축제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2014년~2017년까지 제주도 유망축제, 2018년 제주도 우수축제 선정되는 등 제주도의 명품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 참여하시는 시민, 관광객들은 2018년 새롭게 조성한 무지개방호벽 거리, 도두동 벽화거리가 시선을 머물게 만들며, 도두동 정상에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파란색 물감으로 물들인 바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절경을 감상하게 된다. 또한, 도리교 밴드, 해군 군악대, 예술단 공연, 통기타 공연, 불꽃놀이, 전국오래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볼거리 프로그램과 아빠와 함께 카약타기, 공예 만들기, 은가족 비눗방울 체험, 추억의 보물찾기 등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하는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해마다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제18회 도두오래물축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민 사과 요구

박 위원장, 담당국장에 호통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 위원장이 16일 임시회에서 제주도 국장들에게 도민들에 사과를 요구. 이날 강성의 의원의 도시공원 관련 발언에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을 지키고 자연환경도 지키고 있다"고 답변. 이에 박 위원장은 이 국장의 답변을 제지한 뒤 "국장들은 2020년 7월 일몰제를 몰랐느냐. 왜 지금에 와서 시간이 없다고 와들와들 떠느냐"며 "말씀만 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라. 도정 정책 실패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호통. 표정준기자

박 이사장 "연임 않겠다"

○...8월 4일로 임기 2년을 맞는 박경훈 제주문제재단 이사장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인선에 관심. 16일 제주문제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연임 여부는 임명권자가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추

천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박 이사장이 거취를 표명하면서 심의 이사장 공모 가능성이 제기. 제주문제재단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도지사·도의회 추천 등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문화계 안팎의 이사장 후보들이 거명되는 분위기. 진선희기자

어선 가스누출 현장 감시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항 제2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 A호 기관실에서 냉동기 냉매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6일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시가 진행.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한 국가사안전공사 제주지부와 함께 가스가 누출된 사고현장에 대한 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차후 관계인을 상대로 과실점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 사망한 원모(54)씨는 정박한 배 기관실에서 출어준비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인근 어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 손정경기자

그래픽 뉴스

'기무사문건' 당시 보고 상황

Timeline graphic showing the timeline of the 'Gimusa Incident' from 2018.7.5 to 2018.7.16, including reports from the Gimusa staff and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resignation of the Gimusa Director.

부고 김양호 아버지 김해김공 성진 (훈장·향년 86세)께서 2018년 7월 15일 15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부고 제주시수험 지도상무 고성오 아버지 고성남(향년 81세)께서 2018년 7월 16일 10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부고 강정부 어머니 제주고씨 영수 (향년 94세)께서 서기 2018년 7월 16일 낮 12시 58분경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

분할 합병 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주식회사 해동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영천전기소방(이하 "을"이라 한다)은 서기 2018년 07월 16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가공사업 인양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합병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 (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